

# '짜파구리처럼'...미나리 요리, 미국에 뒀다

美 푸드네트웍, 나물 레시피 소개  
매운탕·전 등 어울리는 음식 나열  
"문화 콘텐츠와 연결...시너지 기대"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밥 수요에다 영화 '미나리'와 연계한 판매 이벤트에 힘입어 미나리 매출이 늘어났다. 사진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송마을에서 농민들이 미나리를 채취하는 모습. 뉴스시스

올해 3월 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해 라면 매출이 2019년보다 16.3%나 늘어났다. 사상 첫 2조원을 넘어선 2조868억원 규모로, 농심 전체 매출의 79%에 달했다. 여기에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의 힘도 작용했다고 업계는 봤다. 실제로 농심 미국법인의 매출이 전년보다 26.5% 늘어난 2502억원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기생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2의 짜파구리'가 나올까. 영화 '미나리'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 관련 호기심을 키운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이민 한인 가족의 이야기. 농장을 꿈꾸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의 좌절과 희망을 그리며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등 26일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미나리에 빚댄 영화의 제목과, 극중 미나리의 씨앗을 뿌려 결실을 맺는 할머니 역 윤여정의 모습이 어우러지며 해외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요리전문 채널이 실제 불철 대표적 채소인 미나리 나물을 소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6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푸드네트웍'이 미나리를 이용한 나물 요리 레시피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푸드네트웍'은 "미나리가 한국에서 널리 소비되며 다양한 한국음식에 쓰인다"면서 "향긋한 잎과 즐기 가운데 대

부분의 부드러운 허브처럼 미나리의 맛이 줄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나리의 독특한 맛과 향이 생선구이, 아귀찜, 매운탕, 삼겹살, 전, 김치 등 거의 모든 한국음식의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극중 윤여정이 손자에게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들 가난하든 김치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아플 때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 원더풀이란다"고 설명하는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와 배우들이 일군 세계적 성과가 아카데미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관련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박지윤 LA통신원은 "문화 콘텐츠가 풍요로워질수록 한류의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연결돼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엄지원, 유튜브 채널 통해 이혼 사실 고백



엄지원

배우 엄지원이 이혼했다. 엄지원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4년 5월 유명 건축가 오영욱씨와 결혼한 지 7년 만에 결별한 사실을 장문의 글로 직접 공개했다. 구체적인 이혼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글에서 "저희 두 사람은 부부보다는 친구로서 관계가 더 많고,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해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꽤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이혼 절차는 따로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백현 '밤비', 솔로 첫 주 최다 앨범 판매량 경신



백현

그들 엑소의 백현이 최근 내놓은 새 미니앨범 'Bambi(밤비)'로 역대 솔로 가수 첫 주 앨범 판매량 기록을 갈아 치웠다. 6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백현은 3월30일 'Bambi'를 내놓고 일주일 동안 86만8000장의 판매량으로 역대 솔로 가수 첫 주 앨범 판매량 최고치를 썼다. 이는 그가 작년 5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Delight(달라이트)'로 세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백현은 이번 앨범으로 전 세계 60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백현은 5월6일 입대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 차예린 MBC 아나운서, 내달 2일 결혼



차예린

차예린 MBC 아나운서(35)가 5월2일 결혼한다. 6일 해피메리드컴퍼니에 따르면 차예린 아나운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 살 연상의 현직 판사(사법연수원 44기)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차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인생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소중한 동반자를 만났다"면서 웨딩화보도 함께 공개했다. 예비신랑과는 남동생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차 아나운서는 MBC '생방송 오늘 저녁'과 '스포츠 매거진'을 진행 중이다.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29일 개막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는 계속된다'(Film Goes On)는 슬로건 아래 29일 막을 올린다. 5월8일까지 영화의 거리 등 전주 일원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전 세계 48개국 186편(장편 116편·단편 7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각 상영작은 전주 시내 4개 극장 17개 상영관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세르비아 출신 스텐다 고루보비치 감독의 '아버지의 길'이고, 폐막작은 프랑스 출신 오렐 감독의 '조셉'이다.

### 송백경, 동료들과 디지털 싱글 발표



송백경

힙합그룹 원타임 출신이자 성우인 송백경이 동료들과 함께 음원을 선보였다. 송백경은 6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성우 KBS 최정윤·MBC 정재현과 함께 디지털 싱글 '서로가 서로를'을 발표했다. 송백경이 작곡·작사·편곡과 랩을 맡고 두 성우가 보컬로 노래했다. 송백경이 새 음원을 내놓은 것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송백경은 1998년 그룹 원타임의 멤버로 데뷔한 뒤 활동하다 2019년 3월 KBS 제44기 성우 공채에 합격해 지난달까지 목소리 연기를 펼쳐왔다.



자산어보

서복

## 두 남자 '커플'의 우정 브로맨스 vs 브로맨스

### 영화 '자산어보' '서복' 흥행 맞대결

'브로맨스' VS '브로맨스'  
두 남자 '커플'의 진한 우정이 봄 시즌 극장가에 스며든다. 3월31일 개봉한 '자산어보'의 설경구·변요한과 15일 선보이는 '서복'의 공유·박보검이 각기 세상에 휘말린 두 남자의 이야기를 펼쳐며 흥행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자산어보'(감독 이준익·제작 씨네월드)에서 설경구와 박보검은 각기 지닌 지식을 서로 나누며 세상을 향한 시선을 마주한다. 설경구는 조선 순조 1년(1801년) 전주교도를 탄압한 신유박해로 유배를 당한 정약전이다. 유배지 흑산도에서 그가 만나는 청년어부 창대가 변요한의 몫이다. 정약전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창대에게 글을 가르치고, 창대는 바다생물에 관한 지식을 호기심 많은 학자에게 전해준다.

공유와 박보검은 미래로 날아간다.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 역의 박보검과, 그와 목숨을 내건 동행에 나선 전직 정보요원 공유는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리며 '서복'(감독 이용주·제작 STUDIO101)에서 만난다. 서복이 서로의 운명에 대해 품은 의문에 부딪히며 삶의 유한함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배우들은 각기 단선적으로 펼쳐낼 수 없는 이야기를 차진 호흡에 의존했음을 고백한다. 이는 실제 선후배의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각 작품은 이에 힘입었다.

설경구는 전남 도초도와 비금도 등에서 촬영하며 태풍을 맞았다. 그는 "자리를 떠나기 싫어 변요한과 함께 남았다"면서 "2~3일 동안 촬영지 마을의 호프집에서 음료를 들으며 진짜 벗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세상이었다. 쉽게 잊혀지지 않을 좋은 추억이었다"고 돌아섰다.

'서복'의 공유도 영화 촬영 직후 지난해 8월 입대해 박보검을 떠올렸다. 그는 "박보검이 농사를 잘 짓고 갔다"면서 박보검과 맞춘 호흡이 "알콩달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남은 배우들이 "잘 수확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배우들이 카메라 앞뒤를 오가며 쌓은 우정은 이달 중순 '서복'의 개봉과 함께 관객의 선택을 받는다. '자산어보'가 6일 현재까지 누적 18만여 관객을 모으며 선전하면서 '서복'과 맞부딪칠 가능성이 커졌다. 윤여수 기자

## "덕출 보고 입덕했다니...50대 시청자 첫 댓글도 감동"

(열혈 팬 됐다)

### 드라마 '나빌레라' 주인공 박인환

76세나이 무색한 발레 연기 화제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는데...  
56년 한우물만 판 내 삶과 닮았죠"

"9살 손자가 제 발레 동작을 따라 합니다. 하하하!"

배우 박인환(76)은 최근 '송강 보려다 박인환 할아버지에 '입덕'했다"는 댓글을 보고 인터넷으로 '입덕'의 뜻을 찾아봤다. "열혈 팬이 됐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신기해 한 것도 잠시, 50대의 한 시청자가 "처음 댓글을 달아본다"며 남긴 응원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방영 중인 tvN 월화 드라마 '나빌레라'로 매일 경험하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도전에 몸 사리지 않은 보람일까. 일흔이 넘는 나이에 발레를 배우는 주인공 덕출을 연기하기 위해 그 역시 "땀땀하게 굳은 몸으로" 발레에 도전했다. "손끝 동작까지 세심하게 담아내느라 여느 때보다 서너 배 이상 늘어난 촬영 시간"도 견뎠다.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인환은 "고생은 했어도 반응이 긍정적이라 격려가 된다"며 웃었다.

-발레 장면이 쉽지 않은 않았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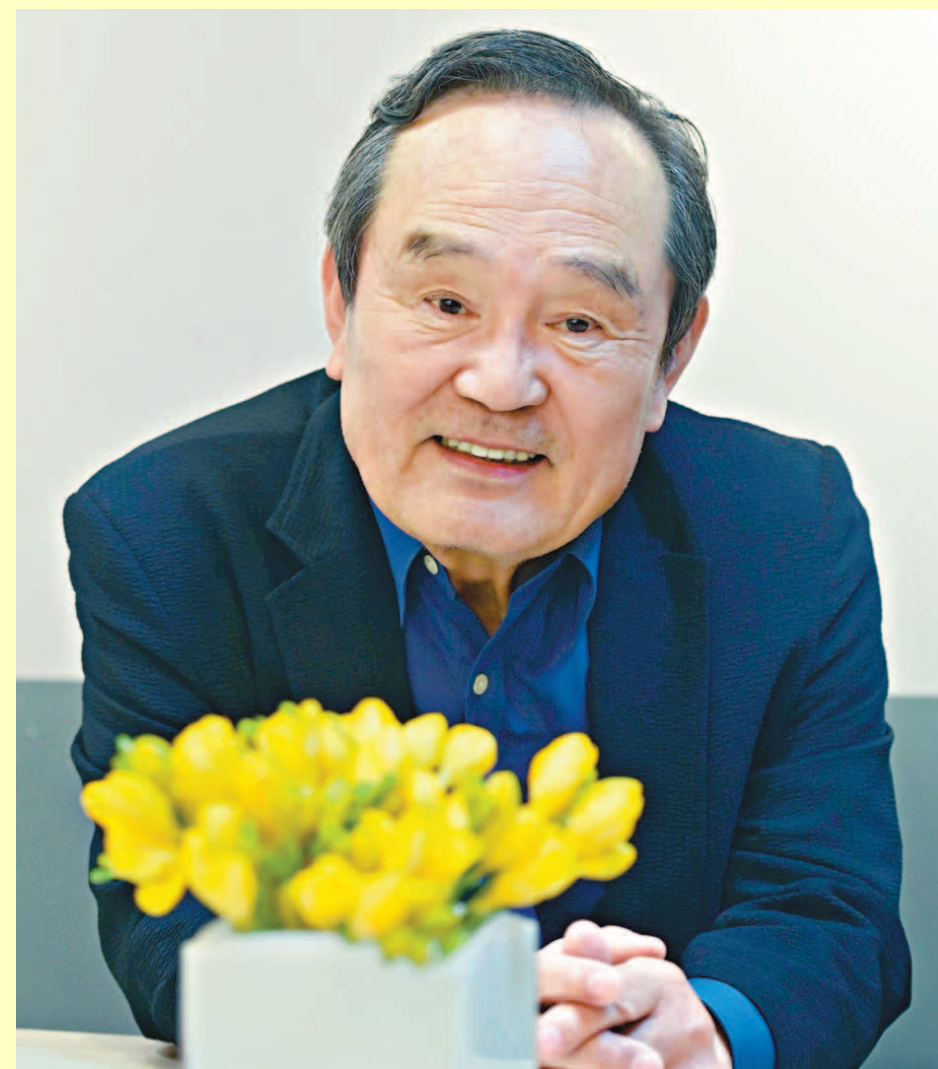
"발레는 젊어서 해야 해요. 하하하! (송)강이는 몸이 길쭉길쭉하니가 땀이 나더라고. 나는 몸이 굵어서 영... 재작년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도 발레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원작 웹툰을 보고 반해버렸지. 게다가 미니시리즈 주인공은 1989년 KBS 2TV '왕룅일가' 이후로 30여 년 만이거든요.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바로 '오케이'했죠."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다.

"저도 신기했어요. '내게도 이런 할아버지가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닐까요? 노인이라 하면 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품 잡는 모습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덕출은 그렇지 않죠. '발레 선생'인 채록(송강)이에게 농담도 하면서 먼저 다가가요. 자신의 의지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좋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가족의 이야기도 하.

"덕출처럼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어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나는 늘 늦게 일이 끝나고, 애들은 학교 다니니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나." 관록의 배우 박인환이 30년 만에 미니시리즈 주인공으로 나서며 연이은 파격에 도전했다. 일흔에 배워본 발레였지만, 치열하게 연기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까 서로 얼굴 마주치기도 힘들었죠. 지금은 아이들이 드라마도 챙겨 봐주고 그래요. 네 명의 손주도 그렇고요."

-연기라는 한 우물을 파오는 동안 아내의 힘도 컸겠다.

"아내가 잡지사 기자 출신이에요. 연극을 한창 하다 1980년 즈음에 MBC '수사반장'으로 처음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정말 치열하고,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은 술이 딱이 되도록 마시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나 못 하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선배들은 체질에 맞아서 하는 걸까? 그 과정을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렇게 이어나니 점점 역할이 커졌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데뷔 이후 56년간 쉬지 않고 연기해왔다. "배우는 작품마다 '테스트'를 받아요. 잘하는 사람만 눈에 띄고, 잘 못 하면 다음엔 캐스팅되기 어렵죠. 선택받은 직업이니까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해요. 아마 다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고독한 싸움이지요."

-최근 윤여정 등 노년의 배우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윤여정 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참 감각이 있는 사람이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양한 나잇대 배우들을 통해 각각 색깔의 소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민 4명 중 1명은 노인인 시대가 왔죠. 이제는 현실의 하나인 거죠. 영화와 드라마가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니,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베테랑들을 통하면 삶의 뿌리를 더 깊게 관조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연기 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다 해봤어요.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그래도 요즘 드라마와 영화 촬영 환경이 많이 좋아져 기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모두가 함께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에요."